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4호 [부록 제25733호] 주제 106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적도기배공화국 농업, 축산 및 식량상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선물을 10일 김형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적도기배공화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김정은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

세계 언론들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지도하신 소식들 세계 언론들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광범히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반제반미대결전의 승전포성을 계속 힘있게 울리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군중집회 진행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군중집회가 11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기술의 힘으로 원만히 풀어나감으로 더 자강적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위력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이란이슬람공화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표명령임시에 참가한 김영남동지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는 조선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김영남동지와 이행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전광호 내각부총리, 리길성 외무성 부상, 머스라파 이자드두스드 키르드 마합테호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임시대리대사 등이



김영남동지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전광호 내각부총리, 리길성 외무성 부상, 머스라파 이자드두스드 키르드 마합테호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임시대리대사 등이

미국은 조선의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한다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지하여 2017년 대두산위인성총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회의 헌신 및 헌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니안 오그본나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2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된 후 전국적으로 347만 5000여명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

주제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침번의 유엔(세계적)을 조작해내고 히스데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는 미제에 대한 분노와 전례없는 보복의 지를 촉발시키며 전민이 조국결사투구의 성전에 총결집해나서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된 후 3일동안 전국적으로 347만 5000여명이 말하는 인민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흙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꼭꼭히 알아야 한다.》

대중에서는 군영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일군들이 인민군

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포함하여 군인의 2만여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자 수많은 청년들이 미제와 총결집할 때를 왔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목숨으로 경사충성하기 위한 성전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지고 호소하였다. 하여 8월 9일 하루동안에만도 8만 9000여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김책공업종합기업소 금광광산 광부들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불러주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안아오기 위한 성전에서 집단의 광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막장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여 매일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연안군 호서협동농장에서는 230여명의 농장원들이 연백밭에서 일하는 자기들이 남기지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서자고 하면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700여명의 농장원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당원한 불매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최근시절 조선인민군 총대장으로 부무한 온천군 통일협동농장 초급농업위원은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즉시 군대명원대에 찾아가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있는 이 땅우에 백전병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놈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복무시절처럼 총을 잡고

조국보위성전에 나서겠다고 결의하였다. 하여 온천군에서만도 58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하자마자 전국의 대학, 학교들에서 열렬한 환영인물에서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국통일세대가 될 청년학생들의 열기가 흘러나왔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땀 앞장에서 경사충성하는 전위투사가 되겠다고 결의하면서 5300여명의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는데 조국통일신공립대학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공화국영웅조국선의 만신상앞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인민군용사들처럼 미국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것을 결의하고 인민군

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신의주시 동고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들도 조선전쟁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조국보위초세대로 부르 고있다. 장군님은 진실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를 부르며 지리산 일대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국통일세대가 될 청년학생들의 열기가 흘러나왔다.

평양농업전문학교에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땀 앞장에서 경사충성하는 전위투사가 되겠다고 결의하면서 5300여명의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는데 조국통일신공립대학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공화국영웅조국선의 만신상앞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인민군용사들처럼 미국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것을 결의하고 인민군

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신의주시 동고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들도 조선전쟁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조국보위초세대로 부르 고있다. 장군님은 진실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를 부르며 지리산 일대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국통일세대가 될 청년학생들의 열기가 흘러나왔다.

평양농업전문학교에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땀 앞장에서 경사충성하는 전위투사가 되겠다고 결의하면서 5300여명의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는데 조국통일신공립대학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공화국영웅조국선의 만신상앞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인민군용사들처럼 미국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것을 결의하고 인민군

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신의주시 동고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들도 조선전쟁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조국보위초세대로 부르 고있다. 장군님은 진실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를 부르며 지리산 일대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국통일세대가 될 청년학생들의 열기가 흘러나왔다.

평양농업전문학교에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땀 앞장에서 경사충성하는 전위투사가 되겠다고 결의하면서 5300여명의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는데 조국통일신공립대학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공화국영웅조국선의 만신상앞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인민군용사들처럼 미국놈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것을 결의하고 인민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경철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경철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가 11일에 진행되었다.

최초로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비평편이 기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재105(2016)년 8월 8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드물지 않는 신념과 배짱

그 어떤 피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신념과 배짱을 보여준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대적도 단숨에 휘어잡아 위라라라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반에 걸쳐 두신 배짱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배짱을 본받아 배짱을 다하여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대적은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진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투어블로」호가 나르되지를 때였다.

도적이 배를 두는 적으로 「보복」을 떠돌고 있는 미제의 한치레의 정황을 치는 우리들의 힘을 본받아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켰다.

조선전쟁을 패관적으로 통찰하지 않는다면 정찰행위를 강행한 무장간첩선의 선원진원을 군사재판에 넘겨 처벌할데 대한 최후의 선고를...

그 어떤 피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신념과 배짱을 보여준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대적도 단숨에 휘어잡아 위라라라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반에 걸쳐 두신 배짱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배짱을 본받아 배짱을 다하여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대적은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진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투어블로」호가 나르되지를 때였다.

도적이 배를 두는 적으로 「보복」을 떠돌고 있는 미제의 한치레의 정황을 치는 우리들의 힘을 본받아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켰다.

조선전쟁을 패관적으로 통찰하지 않는다면 정찰행위를 강행한 무장간첩선의 선원진원을 군사재판에 넘겨 처벌할데 대한 최후의 선고를...

그 어떤 피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신념과 배짱을 보여준다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대적도 단숨에 휘어잡아 위라라라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반에 걸쳐 두신 배짱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배짱을 본받아 배짱을 다하여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대적은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진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투어블로」호가 나르되지를 때였다.

도적이 배를 두는 적으로 「보복」을 떠돌고 있는 미제의 한치레의 정황을 치는 우리들의 힘을 본받아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켰다.

조선전쟁을 패관적으로 통찰하지 않는다면 정찰행위를 강행한 무장간첩선의 선원진원을 군사재판에 넘겨 처벌할데 대한 최후의 선고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화국 대통령
토니 란 켈 암 각하

나는 싱가포르 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원존중, 조화의 원칙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행복과 나라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8월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러안 다 공화국 대통령 별가 매각 하

나는 당신이 르안다 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지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의 훌륭한 명도담에 르안다인민은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8월 10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치리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77돐에 즈음하여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각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77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전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던 항일혁명전쟁을 끝까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종용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투쟁의 중요요인 전략적전술을 제시한 1931년 2월의 명철구회, 1936년 2월의 남춘투회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 시기적 전적으로선 비구기로 결정된 역사적 회담입니다.》

1939년 9월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제는 이 기회에 오키나와섬의 공습이 오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나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지 않고서는 중일전쟁도 나아가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도 실현할수 없다고 라산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복》하는 데 수많은 전략을 동원하였다.

조선전쟁은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 전술을 필요로 요구하고있었다.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략적전술에 도달하기까지 주체적혁명에 대한 라산과 이 시기 투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언제나 주체에서 투쟁을 끌고나가는 원리 문제를 앞으로 전략적전술을 혁명적전술의 시기로 규정할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토론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각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77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전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던 항일혁명전쟁을 끝까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종용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투쟁의 중요요인 전략적전술을 제시한 1931년 2월의 명철구회, 1936년 2월의 남춘투회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 시기적 전적으로선 비구기로 결정된 역사적 회담입니다.》

1939년 9월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제는 이 기회에 오키나와섬의 공습이 오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나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지 않고서는 중일전쟁도 나아가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도 실현할수 없다고 라산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복》하는 데 수많은 전략을 동원하였다.

조선전쟁은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 전술을 필요로 요구하고있었다.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략적전술에 도달하기까지 주체적혁명에 대한 라산과 이 시기 투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언제나 주체에서 투쟁을 끌고나가는 원리 문제를 앞으로 전략적전술을 혁명적전술의 시기로 규정할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토론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각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77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전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던 항일혁명전쟁을 끝까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종용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투쟁의 중요요인 전략적전술을 제시한 1931년 2월의 명철구회, 1936년 2월의 남춘투회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 시기적 전적으로선 비구기로 결정된 역사적 회담입니다.》

1939년 9월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제는 이 기회에 오키나와섬의 공습이 오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나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지 않고서는 중일전쟁도 나아가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도 실현할수 없다고 라산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복》하는 데 수많은 전략을 동원하였다.

조선전쟁은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 전술을 필요로 요구하고있었다.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략적전술에 도달하기까지 주체적혁명에 대한 라산과 이 시기 투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언제나 주체에서 투쟁을 끌고나가는 원리 문제를 앞으로 전략적전술을 혁명적전술의 시기로 규정할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토론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각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77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전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던 항일혁명전쟁을 끝까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종용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투쟁의 중요요인 전략적전술을 제시한 1931년 2월의 명철구회, 1936년 2월의 남춘투회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 시기적 전적으로선 비구기로 결정된 역사적 회담입니다.》

1939년 9월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제는 이 기회에 오키나와섬의 공습이 오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나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지 않고서는 중일전쟁도 나아가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도 실현할수 없다고 라산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복》하는 데 수많은 전략을 동원하였다.

조선전쟁은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 전술을 필요로 요구하고있었다.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략적전술에 도달하기까지 주체적혁명에 대한 라산과 이 시기 투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언제나 주체에서 투쟁을 끌고나가는 원리 문제를 앞으로 전략적전술을 혁명적전술의 시기로 규정할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토론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반제반미대결전의 승전포성을 계속 힘있게 울리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군중집회 진행

1번에서 계속

청년들은 만약 원수들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권력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조상청년의 영웅적 기상을 안고 침략의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영멸 쫓아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김영철 도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광복한데 이어 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박태섭, 도동맹을 대표하여 도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 라병복,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주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한숙현,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김종래주제1사범대학 부학장 박철수,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의 비서 피금남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온 나라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세제압박과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천백배의 보복욕으로 새차재 뿔어넘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사사건건 길고물면서 수차례에 걸쳐 유엔(세계경제의)라는것을 조작해왔지만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우리를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주적신념을 더 굳게 버려주고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 분개연신지대의 투성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올해농사를 앞설것에 지어 호소한 작황을 마련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식인들은 존엄높은 주제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식인답게 실력전, 두뇌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강력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힘찬 전군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성파를 더 많이 이룩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청년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본받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의 시각이 닥쳐오면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애도 다 바쳐 영웅하게 싸움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김봉영 도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광복한데 이어 도당위원회의 부위원장 김성호,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함흥모방직공장 지체인 전장년,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 흥덕구역 풍신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주형민,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함흥화공공업종합대학 부총장 신동철,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김영진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꾸미는 《세계경제의》를 존경히 단죄규탄한다고 하면서 태두의 천출명망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의 입심단결과 자강력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떼를 지어 범버는다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우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로동계급이 영웅적 집일성-집정일로동계급담게 중산동맹의 불길은 더욱 새차재 지켜올러 국방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지를 억 세게 틀어쥐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

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라격전방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영농공정법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하여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혁명의 붓대를 총창처럼 역세게 틀어쥐고 평단들과 함께 박차를 가함으로써 태두산대국의 총합적국력과 자위적인 국방력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갈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7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인승용격전의 앞장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방적으로, 번방적으로 창조출세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들은 《전진하는 사회주의》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들의 비열한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레도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백마치는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며 광장과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단호한 보복,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세상에서 력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북간담도미싸임을 밟사 하면서 력시험을 영연히 독점하려는 야망을 로동적으로 추무하는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리의 자위적력 무력강화를 밀려서하여 조작해낸 불미비리의 《세계경제의》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치명리는 정면도전행위를 감행한 칠천지원부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의 만혹한 행위를 존경히 단죄규탄, 전면 제적하며 지금 온 나라에 원수적멸의 열기가 용인마냥 뿔어넘치고있다.

보라, 우리 공화국을 태지려는 미제의 날강도적본성에는 변함이 없지 않는다.

하지만 미제의 카스로는 위협이 우리에게 통탄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한 것은 태두산대국은 철두철미 혁명적 원칙, 계급적원칙의 주로에서 0.001도 탈선한적이 없기때문이다.

단호한 보복!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력억제력을 협상하여 울러놓지 않을것이며 이미 신성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차례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태두산대국의 대답이다.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최우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혁명적 원칙, 계급적원칙의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는다.

의 시기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의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는데 대하여 더욱 사무치게 절감한다.

반혁명파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은 생명이라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신조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조국이 가장 엄중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천막을 관통한지지도하신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과는 절대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는 력사의 증언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저지른 치명리는 만행은 고발하는 피에 절은 땅을 우리 인민모두가 밟아보게 하여 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게 하고 계급적원칙을 더 견결히 지키게 하는 중요한 의도가 담긴 력사적인 현저지도였다.

계급적원칙의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계급적원칙의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계급적원칙의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우리가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복잡한 정세와 환경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주체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력문제를 갖고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간섭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관을 겪고있는것을 기회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교묘압박하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일꾼들과 자라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면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우리의 사상, 우리들의 제도를 지켜낼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

게 된다고, 혁명투쟁에서 원칙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직물에게 한길을 양보하면 열걸을, 백걸을 양보하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망쳐뜨려 버린다는 력사에 의하여 확고한 진리를 이룩하고 그무릎 막아 강조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세 해 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또다시 신천막을 양보하면 열걸을, 백걸을 양보하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망쳐뜨려 버린다는 력사에 의하여 확고한 진리를 이룩하고 그무릎 막아 강조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계급적원칙이 후회하지 못하여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혁명의 진취성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었다.

를 내놓고 미쳐날뛰는 미제의 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정부성명은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의 궤도에 서는 그 어떤 수정도 없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표시이다.

혁명가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투철해야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 ...

지금 이 시각 천만군민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지지를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역사를 천주만대 잊지 않고 적들과는 기어이 결판을 보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기개로 부글 부글 끓는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과의 판가리결사전에서 우리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는다.

혁명의 수뇌부는 명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 혁명의 운명은 혁명의 수뇌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길에 입심단결이 있고 최우승리가 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민족단결의 번영을 위하여 불굴주야로 초강도강령을 지키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붙어 수뇌부의 사상과 명도를 총칭하여 받들어나가는 사람이 신념의 최강자, 계급의 진취부사이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지지 못해 눈에 피맛을 세우고 명멸의 음모를 다 꾸미며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원수들이 기습을 무리엔 무력수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불길같이 뿔치고 그이를 사수하여서는 그 어떤 수정도 없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표시이다.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길에 입심단결이 있고 최우승리가 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민족단결의 번영을 위하여 불굴주야로 초강도강령을 지키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붙어 수뇌부의 사상과 명도를 총칭하여 받들어나가는 사람이 신념의 최강자, 계급의 진취부사이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지지 못해 눈에 피맛을 세우고 명멸의 음모를 다 꾸미며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병정의 길에서 순간도 멈춤이 없이, 한치도 예봉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오직 앞으로! 이것이 분수없이 날뛰는 미제를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깊숙이 치명시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의 선언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병정의 길에서 순간도 멈춤이 없이, 한치도 예봉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오직 앞으로! 이것이 분수없이 날뛰는 미제를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깊숙이 치명시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의 선언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병정의 길에서 순간도 멈춤이 없이, 한치도 예봉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오직 앞으로! 이것이 분수없이 날뛰는 미제를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깊숙이 치명시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의 선언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병정의 길에서 순간도 멈춤이 없이, 한치도 예봉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오직 앞으로! 이것이 분수없이 날뛰는 미제를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깊숙이 치명시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의 선언이다.

자위적력무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우리 조국을 눈에 본 가시마냥 여기며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벌의법 추악한짓을 다하는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강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길, 우리가 갈길은 오직 선군으로 담은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의 길뿐이라는 신념을 더 굳히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마다에 최강의 무기로 간직할 우리 군대와 인민, 강고한 투쟁을 벌려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넣것은 다 건 우리 공화국을 건지어주지 않고 정경망중한다면 더욱 치렬한 대가만 치르게 될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어찌결고 팔을 쫓고 핵무력강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과 승검을 함께 하며 폭풍노도쳐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의 의지이다.

최후승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의 영리한 기치인 병정포성을 높이 추켜들 존엄높은 태두산대국의것이다.

본사기자 문 순

본사기자 문 순

본사기자 문 순

본사기자 문 순

